사계절 일년내내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우천시 9홀 이후 홈멤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10 "우리도 함께 뛴다"

'1등 인재 육성' 원동력 삼겠다

전남도교육청

"광주 시대를 접고 전남 시대를 여는 첫 해입니다. 새 시대를 맞아 전남도교육청의 교육정신인 '1등 인재 육성'을 다짐하며 뛰겠습니다."

오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전남도교육청 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3년 연속 출사표를 던진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새로운 남악 시대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7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마라톤 참가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 교육청 제공〉

청사 남악 신도시로 이전

도 교육청은 내달 28일 27년간의 광주 북구 매곡동 청사 시대를 접고,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한다.

신청사의 외부모습은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형상을 통해 세계와 미래로 웅비하는 전남교육의 지표를 표현하고 있다.

정현석 전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3·1절 전국마라톤에 참가한 뒤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무과와 행정과, 평생교육 체육과 등에서 60여명이 참가한다.

정현석 기획관리국장은 평소 등산으로 단련된 체력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60여명 3년 연속 출사표

평소 조깅과 등산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는 노병수씨도 "마라톤엔 첫 도전이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혁신복지담당관실 김봉현씨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평소 신조대로 아침 헬스를 통해 가꿔온 체력을 이번 마라톤에서 뽐낼 생각이다.

올해로 2년째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평생교육체육과 김영선씨는 "이번 마라톤 참가를 위해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순발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도 교육청 참가 직원 중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라며 활짝 웃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제회복 희망 품고 힘찬 레이스

광주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북구 경제회복 희망 품고 달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오종인 문화시설관리계장)의 설립 슬로건이다.

북구 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2005년 3월 22일 직원들의 친목과 구정 홍보를 위해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회원 수가 60여 명에 이른다. 슬로건에 맞게 각종 전국 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민·관·직장 및 지역 마라톤 동호회와도 합동 훈련을 갖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10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마라톤' 동호회 회원 30명이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북구청 제공〉

퇴직공무원도 함께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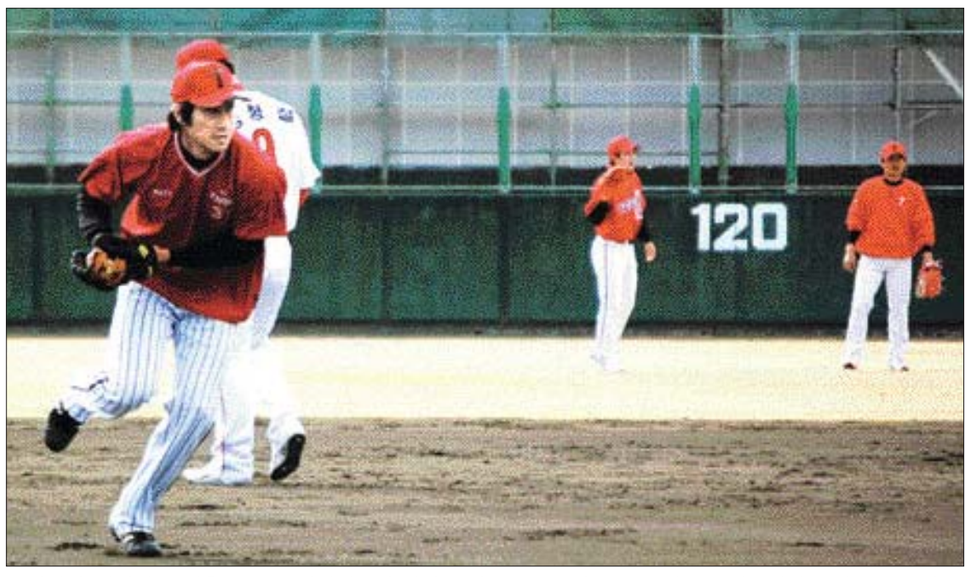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는 이번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동호회원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인 임성택(60·세무 6급)씨를 포함한 최집일(43·세무 7급)씨와 자녀 태영(11·광주 하백초교 4년)군 등 회원 가족 등도 대거 신청해 전체 참가 인원은 83명에 이른다.

동호회 총무 이희정(여·38·사회 8급)씨는 "내 건강과 회원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직장 생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주 두차례 정기 훈련

매주 주중 두 차례(화·토요일) 전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 훈련을 하고 있는 북구청 마라톤 동호회 핵심멤버 중에는 김광렬(46·행정 7급)씨를 비롯한 박종옥(47·행정 7급)·김경옥(54·행정 6급)·정양조(54·행정 6급)씨 등 41.195㎞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이 6명에 달한다.

오종인 북구 마라톤 동호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을 챙기고 나아가 광주시민들이 장기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 환히 웃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꾸준한 동호회 활동으로 북구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선빈·김민철·손정훈 등 KIA 타이거즈의 신예 유격수 후보들이 모두 부상으로 귀국길에 올라 올 KIA의 유격수 주전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앗! 유격수 줄부상… 새 카드 찾아라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김선빈 등 주전급 3명 귀국…이현곤 긴급 투입

부상병 복귀 늦어질 땐 'V10 전략' 차질 우려

뜨겁게 전개되던 KIA 타이거즈의 유격수 경쟁이 '부상' 여파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7일 유격수 김선빈이 허벅지 부상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야수 중 전지훈련 중도에 귀국길에 오른 선수는 김민철, 손정훈에 이어 김선빈이 세 번째다. 공교롭게도 세 명 모두 유격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신예 선수들이다.

기대를 모으던 젊은 선수들의 귀국으로 유격수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시즌 KIA에 복귀하는 김민철은 2001년에 입단한 후 333경기 나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빠른 발과 깔끔한 수비가 장점이지만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면서 복귀를 잠시 미루게 됐다.

2009 신인 손정훈은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짐을 싸야 했다. 남해와 포항에서 특별 훈련까지 소화하며 수비에 자질을 보였던 만큼 조범현 감독과 본인의 아쉬움은 컸다.

지난해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김선빈은 전지훈련에서 방망이를 가다듬은 뒤 타격에서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지난 가을에 다쳤던 허벅지가 또 문제였다.

15일 수비훈련 중 슬라이딩을 하다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경기장 밖으로 나와 상태를 점검받던 김선빈은 상황이 심상치 않자 눈물까지 보였다. 재활을 하느라 마무리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터라 이번 전지훈련에서 누구보다 많은 훈련을 견뎌냈던 만큼 안타까움이 컸다.

코칭스태프도 김선빈의 파이팅과 발전 모습을 지켜본 만큼 쉽게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다, 16일 김선빈의 귀국을 결정했다.

귀국에 앞서 김선빈은 "지난 한 해 경험을 통해 많이 발전했고, 올 겨울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든 훈련을 소화했었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김선빈의 귀국으로 3루수 이현곤이 유격수로 올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현곤은 지난 17일 고려대와의 연습경기에서 자신의 안방인 3루대신 유격수로 나섰다. 18일 자체 청백전에서도 유격수로 나와 김종국과 키스톤 콤비를 이루었다. 3루의 빈자리는 신인 안치홍이 맡았다.

이현곤은 지난해 발바닥 부상으로 고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쾌조의 컨디션으로 수비, 타격 훈련 모두 소화해 내고 있다. 본인 스스로 '내야의 꽃' 유격수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상병'들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이현곤의 무혈 입성이 예상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비어 버린 3루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홍세완이 타격에 물이 오르기는 했지만 수비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전후 내야수 안치홍은 아직 신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영수, 박진영 등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유격수 부재'가 이번 KIA 전지훈련의 최대 키워드가 됐다. / wool@kwangju.co.kr

"만족할때 까지…" 던지고 때리고

명가 재건 밤낮이 없다

■ KIA 타이거즈 야간훈련

야구 명가 재건을 위한 호랑이들의 포효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KIA 타이거즈가 일본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지도 한 달째가 다 되어간다. 괌에서 1차 전지훈련을 끝내고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한 투·포수조의 경우는 한 달이 훌쩍 넘는 시간을 고된 훈련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선수들의 체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조범현 감독은 훈련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주간 훈련의 기준은 '일몰' 때까지이고, 투수들은 경기장 나이트를 밝혀가면서 까지 야간훈련을 하고 있다.

투수들은 오후 6시 숙소에서 이른 저녁을 먹은 후 오후 7시30분 다시 보조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선수들은 줄을 지어 서서 투구 모션을 취하기 시작한다. 느리게 투구 동작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훈련 내용이다.

칸베 코치와 이강철 코치는 선수들 뒤를 쫓으며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서있다. 현역시절 '핵잠수함'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이강철 코치는 자신의 배번 19번을 물려받은 언더핸드 손영민의 투구 자세를 낮추기 위해 이것저것 주문을 쏟아낸다.

100m 정도의 운동장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여분.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생각할 것도 많고 에너지 소모도 많다. 칸베 코치와 이강철 코치가 움직임을 보고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령을 피울 수도 없다.

투수들이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뜨거운 입김을 내뿜는 시간, 야수들도 숙소 휴게실에 모여 방망이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하루 일과가 훈련으로 시작돼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선수들은 한결같이 '힘들면서도 힘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힘들지 않다는 게 선수들의 설명이다.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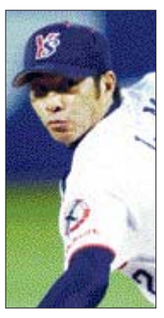
임창용, WBC대표팀 마무리 낙점

'뱀직구' 임창용(33·야쿠르트 스왈로스)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 마무리 투수로 일찌감치 낙점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18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센트럴 오아후 리저널 파크에서 열린 이틀째 훈련에 앞서 "아직 임창용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정상적이라면 마무리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초대 WBC에서는 '돌부처' 오승환(삼성)과 박찬호(필라델피아)가 나눠서 중책을 맡았으나 이번에는 임창용이 전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창용은 현재 소속팀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에서 훈련 중이다.



김 감독과 양상문 투수코치가 임창용을 마무리로 택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해 보여준 빼어난 기량과 풍부한 경험 덕분이다.

일본 무대 데뷔 첫해이던 지난해 임창용은 1승5패, 33세이브를 올려 프로 1년차에 30세이브를 돌파한 역대 세 번째 선수로 기록됐다. /연합뉴스